

지역 소식통

정읍시, 노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단계별 개량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내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도로, 인도, 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 개량을 통해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 산업단지는 물류 교통수단의 대형화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가 많다. 또한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 파손, 맨홀 역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산업단지 기반 시설 노후도를 조사해 사업 시행에 대한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30억원을 확보해 노후도가 가장 심한 제2일반산업단지 지역과 제3일반산업단지의 일부 도로·인도와 하수도 정비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농업용 드론전문 자격증반'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드론의 안전사고 예방과 드론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격증반을 11월까지 운영한다.

농업용 드론은 종자파종, 방제, 비료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생육확인과 병해충 예찰 등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농가 경영비와 노동시간 절감 효과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10여명을 선정해 농업용 드론 조종이 가능한 1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 취득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사진전시관, 관광객 맞이 분주

선운산관광단지내 선운초서문화관, 명칭 변경... 고창이 품은 7개 보물 관광사진 전시

고창군 선운산관광단지 내 자리잡은 선운초서문화관이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전시관'으로 재정비 후 관광객 맞이에 분주하다.

고창군은 가을철 관광객 맞이와 함께 '선운초서문화관'을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전시관'으로 개편해 지난 8월부터 재정비했다.

선운초서문화관은 새로운 용도로의



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전시관'은 70여 평의 규모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관광 홍보 영상물을 상영한다. 또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개의 보물에 대한 홍보패널과 고창의 사계절 매력을 담은 관광지 사진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사계절 아름다움을 듬뿍 담은 사진으로 관광객들에게 고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창의 숨은 명소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회 부안 무경계 락 페스티벌 날다... 7일 개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길수 있는 락 페스티벌·무경계 체험 부스·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재)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1회 부안 무경계 락 페스티벌 날다(F.L.I)'를 10월 7일 부안군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날다(F.L.I)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부안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락 페스티벌(Festival), △무경계 체험 부스(Living), △무경계 아카데미(Incubating)로 구성된다.

락 페스티벌(Festival)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운영에 중점을 기울였다.

행사장 내 모든 턱을 없애고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 등으로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청각장애인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액티브 수화 및 실시간 자막, 음악에 맞추어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우퍼조끼 등 배리어프리 페스티벌을 구성하였다.

페스티벌 출연진으로는 국내 최고의 펑크밴드 크라임너, 로맨틱펀치,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한 배희관 밴드 등 총 6개 팀이 참여한다. 공연은 10월 7일(토) 14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경계 체험 부스(Living)는 저시력 장애인 안경을 착용하고 소품을 만들고,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는 우퍼조끼를 체험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더불어 지역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4일 사전 진행된 무경계 아카데미(Incubating)는 미래의 무경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내의 목표점은 대표, 예술가 라운콘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 사연 접수 이벤트도 마련하여 연인, 친구, 부모님 및 가족에게 하고픈 말과 신청곡을 받아 출연진들이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연주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페스티벌을 만들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부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벽을 허물고 함께 부대끼며, 문화예술이 주는 감동을 더불어 즐기는 무경계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단군성전 본전서 개천절 국조 단군숭봉제 거행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고창군 단군성전보전위원회(위원장 한상욱)는 단군성전 본전 고창읍 교촌리 225-5번지에서 개천절 국조 단군 숭봉제를 거행했다.

고창군 단군성전 본전은 1,250여명에 달하는 군민들의 순수한 성심으로 건립되었으며, 1979년 건립된 이후로 매년 10월 3일에 국조 단군 숭봉제를 지내고 있다.

단군의 건국아념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례 의식인 단군 숭봉제는 코로나19로 인



하여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초현관(심덕섭 고창군수), 아현관(신영남 고창향교 전교), 중현관(이종길 흥덕향

교 전교) 및 유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상욱 위원장은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해주신 유림 및 주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 제례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몇년간 연휴의 마지막을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군민들과 함께 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개최

1차 예선 동영상·2차 예선 14일·본선 15일 오후 3시

노을이 아름다운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2023 부안 붉은노을축제 기간에 제1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가 열린다.

13일부터 15일까지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부안붉은노을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1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예선 2차 경연이 14일 오후 1시부터, 본선이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제1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에는 서울, 부산, 대구, 거제도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68팀이 경합을 벌여 동영상 심사 결과 예선 2차 경연에 진출할 25팀이 최종 선발됐다.

바다와 노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제1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는 전국 민에게 부안이 보유한 노을 자연자산

과 문화자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부안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부안노을동요제'의 전체 시상금은 1,040만원으로 대대상 1팀, 상금 300만원 △금상 1팀, 상금 200만원 △은상 2팀, 상금 100만원 △동상 2팀, 상금 70만원 △장려상 4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는 13일 개막식(로이킴 린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레드와인 페스티벌, '스카이 갤러리(대형 LED 연)', 영화 변산 을 모티브로 한 모래조각, 와인과 함께 즐기는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15일 폐막식에는 팬텀싱어 4 우승팀인 비베란테의 공연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2021년도부터 시행한 덕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시행하고 있다.

정읍시, 덕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정읍시는 2021년도부터 시행한 덕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시행하고 있다.

고부면 덕안2 인영마을 일원에 있는 덕안2지구는 시에서 지적불부합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다. 일부 토지는 20여년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크게 겪기도 했다.

특히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현저히 달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해당지구의 지적불부합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경계합의를 도출하는 등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

적인 토지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앞장섰다.

시는 새롭게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숙유했던 만큼 마지막까지 실속있는 행정을 하겠다"며 "올해 추진 중인 4개 지구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감곡면 진흥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4만8810필지 중 1만823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해 4개지구 2912필지를 추진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